

# 전남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총력

### 온·오프라인 50% 할인 행사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공공기관 등 대량 소비처 발굴

전남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한다.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수도권 등 대도시 직거래장터 개최 ▲수산물 대량 소비처 발굴 ▲수산물 홍보 캠페인 등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예비비 20억원을 긴급 투입해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추석맞이 전남 수산물 사랑해 할인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획전에선 신선한 남도 수산물을 30%에서 최대 50% 할

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카카오투플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도 연계한 온라인 할인 행사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산물 판매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온라인뿐 아니라 지난 8월 도청에서 수산물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9월 서울을 청계광장, 경기 용인시 등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 수산물 판매·홍보에 열을 올렸다.

앞으로 수협, 어업인 단체 등과 함께 서울, 광주, 경기도 등 대도시 지역에서 수산물 판촉전을 개최, 도시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전남산 수산물을 홍보하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등 수산물 판로 확대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도 오는 12월 1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목포 자유시장과 동부시장, 광양 중마시장을 방문한 소비자가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

물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수산물 2만 5000원 이상은 1만원, 5만원 이상은 2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 등 공공기관 대상으로 수산물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공단 등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적극 요청해 수산물 대형 소비처 발굴에도 노력한다.

또 취약계층 정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내 취약계층 2000가구를 대상으로 수산물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전달 등을 통해 소비심리 회복할 방침이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과공과장은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돕기 위해 소비 촉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DJ정신 계승

### 목포 평화광장·신안 자온도서 오늘부터 3일간 김대중 평화회의

'2023 김대중 평화회의'가 4일부터 3일간 목포 평화광장과 신안 라마다플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온도에서 열린다.

김대중평화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지구촌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2021년부터 전남도·목포시·신안군이 공동 주최하고 (사)김대중평화센터 주관으로 지난 2021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구적 책임과 지구적 평화'를 주제로 '인류와 자연의 공존, 코스모 민주주의'를 강조한 '김대중 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와 지구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4일에는 목포 평화광장에서 전야제로 '김대

중 평화콘서트'가 오후 5시부터 이틀간 신안 씨원리조트에서 학술행사가 진행된다.

'제3의 길' 저자인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 전 주한미국대사 캐서린 스티븐슨, 일본 오키나와현 데니 타마키 지사가 영상으로 학술 행사 개최를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막연설을 통해 '김대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남도의 노력과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인도의 시민운동가이자 2014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카일라시 사타아르티, 세계혁신대학평가 1위에 빛나는 미국 미네르바대학의 마이크 매기 총장이 기조연설 연사로 나선다.

학술행사는 ▲기후·질병위기 ▲제4차 산업혁명과 인류의 미래 ▲신냉전과 지구적 평화체계 모색 ▲식량·에너지 위기 해결 ▲한반도 평화 등 7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도영화제 시즌 1 순천'이 오는 11일 오후 6시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에서 개막, 16일까지 펼쳐진다. 영화제는 '영화의 정원을 거닐다'라는 주제에 따라 경연·산보·풍광·동행·여흥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사진은 지난 8월 19일 순천만정원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 사전 상영회를 지켜보고 있는 관람객들. <전남도 제공>

##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서 11일부터 6일간 '남도영화제'

### 경연·산보·풍광·동행·여흥 5개 세션 6곳 11개 스크린 97편 작품 무료

'남도영화제 시즌 1 순천'이 오는 11일 오후 6시 순천만 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에서 개막한다. 개막 첫 상영 작품은 정다운 영화감독의 '땅에 쓰는 시'다.

남도영화제는 전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사)전남영상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며 관람객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화제는 '영화의 정원을 거닐다'라는 주제에 따라 경연·산보·풍광·동행·여흥 등 5개 세션을 구성하고 도민과 공연, 정원과 작가가 함께하는 영

화제라는 콘셉트에 맞춰 관람객이 남도의 매력에 빠지도록 구성했다.

경연 분야는 첫 해에도 불구하고 단편 576편, 장편 60편이 출품됐다. 장편은 변성빈 감독의 '공작새', 김보람 감독의 '두사람을 위한 식탁' 등 9편이, 단편은 허지훈 감독의 '가정동', 김초희 감독의 '우라까이 하루끼' 등 16편이 상영된다.

12일에는 신안에서 촬영된 '자산어보'의 이준익 감독과의 대화, 고전 영화 성춘향과 판소리 춘향, 재즈라이브가 어우러진 필름 판소리, 춘향이 펼쳐진다.

13일에는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모리코네의 삶을 다룬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와 2023 한국대중음악상 수상의 빛, 음악프로듀서 겸 DJ 250공연

이 진행된다.

14일에는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가 현대판 변사,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15일에는 남도를 대표하는 김승욱 작가와 정훈희 가수가 함께 참여하는 김승욱 특별전이 예정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열리는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을 시작으로 남도의 매력을 알리고 유구한 남도의 문화 역사자원을 세계인이 즐기는 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만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 조례호수공원, 순천 CGV,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 등 6개소, 11개 스크린에서 25개국 97편의 작품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전라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으로 접근성 개선

### 추석 귀성·귀경길 불편 크게 줄어

지난 9월 1일부터 전라선에 여수·순천에서 서울 수서행 SRT와 신형인 용산행 ITX-마을 열차가 운행돼 동부권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되고, 이번 추석 연휴 귀성객 불편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라선에서 고속열차(SRT) 운행은 여수엑스포역에서 아침 6시 46분 첫 출발해 수서역에 9시 56분에 도착하는 등 각 하루 2회 왕복 운행해 총 4회가 운행된다. 그동안 전라선 고속열차는 여수엑스포역에서 용산역 또는 서울역까지 KTX만 운행돼 수서역을 가려면 익산역에서 환승하거나 서울역까지 간 다음 서울 강남으로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수서행 열차 운행으로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이동시간도 단축돼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이 다소 해소됐다.

앞으로 경부선·호남선 동시 운행되는 평택-오송 병목 구간이 2027년 2복선화되고 KTX·SRT 차량이 추가 도입되면 열차 운행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무궁화호 등 노후 디젤 열차를 대체하는 동력분산식 친환경 신형 열차인 ITX-마을도 9월 1일부터 하루 2회 왕복 운행해 총 4차례 운행하고 있다.

ITX-마을은 여수엑스포역에서 용산역까지 최고 속도 150km/h로 운행되며 약 4시간이 소요된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고속열차 증편과 수서행 열차운행을 줄기차게 요구해 마침내 전남 주민의 숙원사업인 전라선에 고속열차가 운행되는 결실을 봤다"며 "앞으로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과 열차 증편 운행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반려동물과 캠핑...해남서 '전남도 펫 페스티벌'

### 7~9일 오시아노 관광단지

전남도가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오는 7~9일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다양한 캠핑 행사를 즐기는 '2023 전라남도 펫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23 전남 캠핑관광 박람회와 동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강아지를 사랑하는 모임' 최경선 박사, 반려생활 전문 강사 김학목 대표 등이 진행하는 전문 강연과 토크쇼, 어질리티 및 프리스비 공연, 반려동물 장기자랑, 도그 올림픽, 어질리티 체험, 반려동물 미용 강연, 기업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으로 진행된다. 어질리티는 보호자의 지시에 따라 반려견이 여러 장애물을 넘거나 통과하는 스포츠다. 프리스비는 보호자가 원반을 던지면 반려견이 달려가 물어오는 놀이의 일종이다.

전문 강연과 토크쇼 프로그램의 경우 '반려견의 건강이야기', '넌 소중한 우리 가족이야', '슬기로운 반려 생활', '펫과 함께하는 올바른 산책' 등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건강관리법, 함께 하는 삶 등 다양한 주제의 생생한 강연이 펼쳐진다. 반려동물 행사 전문 MC 핑키가 진행하는 '반려견 장기자랑'에서는 참가자들이 반려견을 소개하고 다양한 장기자랑도 선보인다. /윤현석 기자 chadol@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